

8.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조언과 영적 동반자 관계.

2014.10.19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오늘밤에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결혼생활과 영적인 삶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이해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매우 반항적이 여성이었어요. 제 삶에서 일반적으로 남편과 남자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남자들과 동등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것을 잘 못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었어요.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28절)

이것은 예언적인 메시지고 주님의 말씀들이에요. 이 글의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예수님) 클레어, 나는 너가 결혼생활에서 커버(보호)하고 분별하는 영역을 다루기를 원해. 나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해.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보다 위에 있어. 이것은 세상의 본성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뒤에 무엇이 숨어있는 지를 보지 못해. 그게 무슨 뜻 이냐면, 여성들은 그들의 남편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해.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겠어? 내가 낮고 숨겨진 사람들 안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은 동화책의 영적 거인을 찾고 있어. 남자들은 아내에게 쉽게 소심해져. 항상 그것을 드러내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그래. 나는 그것을 보장할 수 있어.

소심함은 남자로 하여금 그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포기하고 물러나도록 강요해. 세상에서 남편의 임무는 가족을 위해 계속 일하는 것에 사로잡혀있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피곤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나와 기도하면서 함께 있는거야. 그는 아내가 부분적으로 자신을 리드하는 것을 봐. 왜냐하면 아내는 공부하고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이야. 그는 자신이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가장 하기 쉬운 것으로 돌아가. 나는 그를 더 걱정해. 왜냐하면 이렇게 포기하는 경향은 나와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 해롭기 때문이야. 아내는 자라지만 남편은 정체되어져. 만약 남편이 정말 나를 강하게 원하는 보통의 남자가 아니라면. 이 시점에서 나는 여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길을 잃어버린 남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예술의 형태야. 아내의 많은 성찰과 많은 굴복, 많은 노력이 필요한 섬세한 일이야.

(클레어) 저희가 하는 말들과 저희들의 궁극적인 태도들을 잘 확인하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 맞아, 그 말들은 단지 마음의 태도의 표면적인 표현일뿐이야. 이 상황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나는 조언하고 싶어: 너희들의 남편에서 나를 보고 내가 그를 지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남편 안에 있는 나와 관계를 쌓아라. 그렇게 하여 내가 그에게서 나와 그를 리드하는 것이 안전해. 너는 너가 겪은 일을 알고 있고 그 중 일부를 공유해줄 수 있어.

(클레어) 주님, 제 방식대로 하여 겪은 저의 고군분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 그리고 다른 것들도, 숨겨진 비난들. 남자의 자존심을 물어뜯은 작은 여우들. 너가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너가 그에게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는 느낄 수 있어. 너가 아직도 이것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나는 너를 도와주고 있어. 너의 마음에 생생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어. 가정과 세상에서 남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악마들이 24시간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줘.

이것이 남성들이 쉽게 간음하게 되는 이유야. 회사에서 같이 일 하는 여자는 그를 띄어 줘서 기분 좋게 만들어. 하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의 아내는 그의 신발을 바닥 한 가운데에 두었다고 한마디해. 이건 그냥 한마디가 아니야. 그의 마음에 '나는 나쁘다' 라는 (누르는)버튼을 만드는 15~20년의 가치가 있는 한마디야. 가볍게 시작해서 다른 모든 잔소리들이 시작되고 그는 자신이 나쁘다고 느끼게 되.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너희는 운이 좋은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민감한 남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쉽게 볼 수 있어. 대부분의 남자들은 좋지 않은 말로 받아 치거나 그냥 무시하고 티비를 보거나 쇼핑을 해. 왜 악마들이 남성의 명예를 떨어뜨리는데 열심히 인줄 알아? 왜냐하면 남성이 여성들을 커버(보호)하기 때문이야.

이게 올바른 질서야. 이 질서들이 맞지 않을 때 악마들은 여성을 체질하고 그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녀의 기도시간에 들어가 거짓된 말들을 끼워넣을 수 있어. 그 여성을 부질없는 추구로 이끌고 마침내는 그녀에게 더 영적인 남자가 필요하다고 설득당하게되. 그들의 자녀들은 존중하지 않는 여성들의 이 모든 행동들을 보고 그들도 따라하게되. 그래서 이것은 남성들에 대한 경멸의 순환이 다음세대에도 계속되어져. 남자는 질서에 대해 아주 민감해. 나는 자주 그를 통해 무언가 잘못 되어있다는 것을 인식시키지만, 분노나 어떤 위협적인 행동에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슬며시 피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래로, 더 아래로 슬며시 피해.

이곳이 그들의 삶이 통치자 없이 그녀의 영적인 통찰력에만 사는 곳이야. 이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이끄는 것과 같아. 나는 어려운 일들을 제기하고 의심되는 일에 맞서게 하도록 남자를 그 위치에 놓았어. 하지만 그들은 눈물이든지 항의든지

아내들의 그 반응들을 다루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그들의 아내들을 커버하고 보호하는 것에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 피해. 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좋은 결혼 생활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려는 사람들을 위한 거야.

나는 너희 여성들에게 말해,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사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너희들의 남편을 사용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혼한거야. 단순히 자녀들을 낳고 안정된 가정을 갖는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속임수 없이 진리 안에서 사는 생산적인 삶을 위해서, 거룩한 자손들을 낳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 너희들은 그 것을 볼 수 있어.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브와 편안하고 만족했으며 그녀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 너희 남자들은 너희들이 보여지는 것만큼 강하지 않아. 건장함과 강함은 같은 뜻이 아니야.

강함의 뜻은 앞서 생각하고 훌륭하고 강한 결정을 내리는 거야. 심지어 너희 아내들이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강함의 뜻은 “알겠습니다 주님, 아내가 원하는것, 요구하는 것등에 대해 제가 저의 아내를 반대하면서 발생할 투쟁과 고통을 기꺼히 감내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서 저를 이끄신다고 믿는 것에 서있을 것입니다.”

이 남성이 강한 남성이야. 그녀를 때리거나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건 사내 계집애 같은 행동이지 진정한 남자가 아니야. 너희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아내를 사랑해야 되. 왜냐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아내를 잘 대우하는 지에 따라서 너희들의 좋은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야. 나는 너희들을 아내에게 가혹하고 못되게 굴라고 두 사람을 함께하게 하지 않았어.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세상도 너희에게 아주 똑같은 대우를 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고 옳은 일을 하도록 함께하게 하였어. 그러니 너희들의 인내와 노력으로 아내를 이겨낼 수 있어.

아내들아, 남편은 나의 길을 듣고 너희들의 가족들을 위한 나의 뜻에 대해 너희들이 정의를 내린 영적 남편일 필요가 없어. 나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 놓았어. 그래, 그가 성경구절에서 이것들을 구할 때 그것은 정말 훌륭하지만, 이것이 그가 영의 인도를 받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야. 많은 상황에 남편들은 어떤 것에 대한 깊은 감정과 확신을 느끼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안에 있고, 내가 그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야. 심지어 성경공부 없이도, 수요 저녁 예배 나 일요 예배 없이도 그것을 느낄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의 남편 안에 살고 있고, 너희들이 결혼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너희 남편들의 안에 있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다는 것이야.

아내들에게 내가 준 선물이 내가 남편들에게 준 선물을 능가하면 남편들은 물러날 거야. 정말 많은 남성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것 같아보이는 아내에게 조항키를 넘겨주었어.

그래서 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간청해. 남편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있던지 간에 너희의 남편들 안에 있는 나를 존중해줘.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나는 나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들이 우뚝 서기 시작하게 만들 거야.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너희들은 그의 안에서 다른 책임감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영적 책임감. 그를 일으켜세우고 너희들의 사랑이 아닌 나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줘. 나의 사랑은 집안 한 가운데 놓여진 신발 또는 샤워로 구겨진 발수건을 넘어서도 도달할 수 있어. 너희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오랫동안 보아라. 너희들 자신의 의견, 자신의 의제 그리고 자신의 방식들을 선호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봐. 그리고 다가오는 날들에 너희들 자신을 지켜봐라.

너희들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너희들은 나를 향한 남편의 수동적인 마음에 대해 부분적인 책임이 있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훌륭한 결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따라라. 너희들이 가졌어야 했고 항상 원했던 결혼생활을. 만약 너희들이 협력한다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이 가르침은 너희들이 올바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야. 만약 너희들의 남편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라고 데려온 남자가 아닐지라도 너희들은 여전히 겸손함으로 자랄 수 있고, 나는 나의 시간에 그들을 데려갈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은 더욱 거룩해지고, 나와 함께 더욱 깊어질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될 거야. 너희들에게 진정한 교제가 부족하지 않을 거야. 기억해라, 자만함은 이 악의 뿌리이고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 나의 축복받은 사람들아, 굴욕적이고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통을 주는 것은 오직 너희들의 자만심이고, 그것은 너희들에게는 추가되는 고통이야.

(클레어)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끝이에요. 이제 저의 몇 가지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저의 남편을 존중하지 않은 몇 가지 방식들이고 이것들을 여러분의 방식들과 비교해보실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예시들이 있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어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일이나 어떠한 다른 일들로 바빴고, 나중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행동을 많이 했었고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것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예로는, 저녁을 먹으러 갈 때 과거에는 저의 방식을 주장했었어요.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양보하지 않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을 주장했어요.

또 다른 예가 더 있어요. 그의 사무실, 그의 가게 혹은 욕실 등 그의 사적인 공간에 물건들이 배열되어있는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예요. 물건들을 옮기지 않거나 혹은 어지럽히지 않거나 혹은 물건들이 제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청소하지 않는 것이예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했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 달라고 원했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는 일과 계획에 정신을 쏟으면 그것들을 그냥 미루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결국에 여러분은 남편의 요청을 미루거나 남편을 밖으로 혼자 보낼 것이예요.

저는 남편이 편안해하지 않는 옷을 입게 만들었어요. 저는 저희들이 밖에 나갈 때 남편이 특정한 옷차림을 입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보다 저의 주장을 고집했어요. “여보, 당신을 위해 오늘 저녁 특별한 것을 입고 싶어.” 아니면 “저번에 당신이 입었던 초록색 셔츠 정말 마음에 들더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게 하거나 겁먹게 하지 않을 것이예요.

여러분 중 몇몇이 이렇게 이야기할거라는 것을 알아요.. ‘오 클레어 자매님 저희는 이미 그것들을 모두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을 저는 칭찬해요.

이제 주님께서 제게 얼마나 심각하셨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저에게 유튜브에서 대중들에 대한 사역을 시키시기 바로 전에 저의 컴퓨터가 갑자기 멈췄고 켜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마침내 울면서 포기하였고 생각하였어요.. ‘오.. 이것이 나의 사역의 끝이구나.’ 저는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사용하기 위해 계획해 놓았던 모든 가르침들, 노래들, 미술작품 그리고 영화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주님께서 제가 하도록 부르시고 저를 훈련시키신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아무런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존경하는 만큼 너의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한 너의 사역은 완전히 쓸모가 없어. 나를 존경하는 만큼 너의 남편도 존경해야 되.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쓸 수 없어 클레어.” 이것은 명백한 진실이고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풀이 죽었어요. 저의 모든 세상은 그냥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저를 33년 동안 훈련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제 삶에서 나중에 올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은 저에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많은 풍성한 것들을 주셨는데, 이제 주님은 저에게 주신 훈련과 경험들 모두는 제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한 주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으세요. 진정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요.

저는 주님께서 제가 얼마나 남편을 통제를 하였는지 보여주기 시작하시기 전까지 며칠동안 슬픔과 자기 연민으로 완전히 겁에 질려있었어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었는지에 소름이 돋았어요. 주님께서 저의 남편을 통해 저를 이끌고 싶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남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가 있어요. 남편은 제가 몇 개의 머그잔과 접시 그리고 은 식기류를 버리길 원했어요. 그럼 제가 설거지할 때 더 많이 해도 되지 않으니까요. 몇 년 동안 제 남편은 이렇게하기를 요청했고 몇 년 동안 그의 요청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몇 년 후에, 저는 은 식기류와 접시들의 3분의2를 버렸고, 그 결과 설거지는 1시간 30분이 걸리는 대신 20분 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어요. 이것은 정말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매 순간 저와 이렇게 하고 싶어하셨어요. 하지만 부엌은 제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의 것을 안다고 생각하였고 저의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주님은 저의 남편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저의 자만심 때문에 저는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컴퓨터로 다시 돌아와서, 3일동안의 어둠의 시간 후에 (말장난 아니에요) 제가 회개 해왔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자비를 베푸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컴퓨터로 가서 전원을 켜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완벽하게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일이에요.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걸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은 저에 대한 주님의 심각한 가르침이었어요.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저에게 주신 모든 선물은 주님에게 쓸모가 없는 것이었어요.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성분들은 저와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태도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하길 바라요.

‘주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남편들을 숨막히게 하고 그늘지게 하여 그들을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게 하였는지를 보여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의 겸손으로 저희의 자만심을 정복할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저희들의 비뚤어진 길을 드러내 주시고 똑바른 길로 만들어주세요.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희들의 남편을 주님께서 부르신대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남편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저희들이 진정한 그들의 도움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저희가 저희들의 남편들에게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을 위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